

秋胡戲妻 고사의 由來와 演變 과정*

유태규**

〈目 次〉

1. 序 論
2. 《節義傳》
3. 《秋胡行》
4. 《西京雜記》
5. 《秋胡謠》
6. 《秋胡變文》
7. 結 語

1. 序 論

“뽕도 따고 님도 본다”라는 속담은 양잠을 위해 뽕잎을 따던 청춘남녀들이 은밀하게 뽕밭에서 상열지사를 나누는 밀회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유래하였다. “남녀칠세 부동석”을 강요했던 조선시대는 젊은 남녀 간에 자유로운 “만남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들은 명주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청춘남녀가 뽕밭에 가서 뽕잎을 따는 것만은 연명제한과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뽕잎을 채취하는 청춘남녀들에게 있어 뽕밭은 노동과 사랑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은밀하면서도 묵인된 현장이었다.

중국에서도 뽕나무들이 상징하는 桑中, 桑林, 桑間 등과 같은 장소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하는 매우 개방된 공간이자 남녀 간의 상열지사를 이루는 은밀한 연애의 장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때문에 “桑中之約” 혹은 “桑間濮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충주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tkyoo@cjnu.ac.kr

上”¹⁾과 같은 성어들은 모두 남녀 간에 은밀히 밀회를 나누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또 《詩經》과 漢《樂府》중에도 採桑과 관련된 다양한 노래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뽕나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고사는 역시 春秋戰國 시기에 발생한 魯나라의 秋胡戲妻 고사가 가장 유명하다. 이 秋胡고사는 劉向의 《列女傳》에 최초로 기록된 이래 현재까지 약 2천 여 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각종 시와 소설 희곡 등의 다양한 장르로 전승, 발전되고 있다.

어떤 작가는 인물의 형상화를 시도할 때에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작가는 자신이 처한 시대 상황과 역사적 관점 및, 정치적 성향과 정서적인 취향에 기탁하여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 내기도 할 것이다.

秋胡가 결혼 후 5일 만에 부인과 이별하였다가 5년 만에 귀국하는 비극적인 스토리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족한 긴장감을 구성하고 있다.²⁾ 그런데 귀국하던 秋胡가 뽕잎을 채취하는 여인이 자신의 부인인 줄도 모르고 그녀의 자태에 반하여 유혹과 희롱을 건넸다는 과격적인 구성이 이 고사의 戲劇性과 생명력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창작시대 순에 의거하여 劉向의 《列女傳》의 《舊秋潔婦》 고사에서 시작하여 唐代의 《秋胡變文》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편의 주요 작품을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상기 작품의 작가들은 秋胡고사를 기록할 때 자신의 역사적 관점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취향에 근거하여 고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秋胡戲妻 고사는 천편 일률적으로 秋胡의 戲妻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秋胡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秋胡를 부정적인 인물로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초기 秋胡고사가 발생해서 《秋胡變文》에 이르는 과정 동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1) 桑間濮上: “桑間”은 고대 춘추시기 衛나라 濮水의 상류에 있던 지명이다. 후대에 “桑間濮上”은 음란한 풍조가 성행하는 지방을 지칭하였고, 점차 남녀가 밀회하는 場所를 일컫게 되었다.
2) 秋胡가 결혼 후 출국한 날짜와 귀국하는 시기는 각 작품마다 상이하다. 이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譌記라고 생각된다.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기 다섯 편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秋胡의 출국과 귀국, 妻에 대한 戲弄과 상봉, 그리고 秋胡妻의 투신 행위 등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작품 간의 상호연관성과 변화 및 특성을 고찰하고, 秋胡와 秋胡妻의 인물형상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節義傳〉

秋胡戲妻 고사는 漢代의 劉向(紀元前77-前6)이 편찬한 《列女傳》중의 〈節義傳〉에 「魯秋潔婦」라는 고사로 처음 등장한다.

순결한 부인은 바로 노나라 추호자의 처이다. 결혼한 지 5일 만에 陳나라에 관리를 하러떠났다가 5년 만에 귀국하는 길이었다. 거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서 잠상하고 있는 어떤 부인을 보았다. 추호자는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수레에서 내려 수작을 길었다. “이처럼 더운 날 땀을 따시는군요. 내가 먼 길을 오래 걸어 피곤하니 청컨대 땀나무 그늘 밑에서 허기를 좀 채우면서 쉬어갔으면 합니다.” 부인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자 추호자가 또 말하였다: “농사에 힘쓰는 것은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힘써 蠶桑을 한다 해도 나라의 관리를 만나는 것만 못하대요. 내가 황금을 갖고 있는데 당신에게 드리고 싶소.” 이에 부인이 화답하였다: “아! 열심히 잠상을 하는 것은 실을 짜서 옷과 양식 거리를 만들어 양친을 모시고 지아비를 섬기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황금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원컨대 당신께서는 다른 뜻이 없으시기 바라며, 저 역시 음란한 생각이 없으니, 부디 당신은 집과 황금을 거두십시오.” 추호자는 의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를 뵈고는 가지고 온 황금을 모두 모두 드리고, 이어 하인에게 부인을 불러오게 해서 보니, 바로 방금 전 잠상을 하던 그 여인이었다. 추호자는 몹시 부끄러웠다. 이에 부인이 말하였다: “당신은 장가를 들자마자 부모님을 하직하고 벼슬길에 올랐다가 오 년 만에 귀가하였습니다. 마땅히 기뻐하면서 수레를 빨리 몰아 먼지를 일으켜 달려오셔야지요. 그런데 오늘 당신은 길가에서 만난 부인에게 눈이 팔려

짐을 내려놓고 황금까지 주려고 했으니 이것은 어머니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어머니를 저버린 행위는 불효이고, 여색을 좋아하여 음탕함에 빠지는 것은 행실을 더럽힌 것이고, 행실을 더럽힌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무릇 부모를 섬김에 불효하면 군주를 섬기는데 불충하게 되고, 가정 일을 옹케 하지 못하면 관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것입니다. 효와 의를 다 저버린다면 틀림없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다시 장가드세요. 저는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나서 동쪽에 있는 강에 투신하여 자진하였다. 군자가 말하였다: “潔婦는 선을 위해 온 정성을 다 하였다. 대저 불효 중에서 부모를 친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나친 것이니, 추호자에게 바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 군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행을 보게 되면 이르지 못할까 근심하고, 선량하지 못한 행위를 보면 마치 끊는 물속에서 재빨리 손을 피하듯이 하라.” 이 말은 바로 추호자의 부인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詩經에 이르기를: “오허려 마음이 편협해서 좌우에서 조롱을 받는다네.” 라고 한 것은 이를 일컫는 말이다. 頌에 이르기를: “서쪽으로 벼슬살이 간 추호자가 오 년 만에 돌아왔다네. 처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 품었네. 단 생각 품지 않고 올곧게 수절하던 처가 귀가하여 이 사실을 알고는 불의한 남편이 부끄러워 마침내 동쪽의 강에 몸을 던졌다네.”³⁾

3) 潔婦者，魯秋胡子妻也。既納之五日，去而宦于陳，五年乃歸。未至家，見路旁婦人采桑，秋胡子悅之，下車謂曰：“若曠采桑，吾行道遠，愿得桑蔭下流。(流(ian): “贅”과 같은 동의어로 이용된다.) 下囊休焉。婦人采桑不輟，秋胡子謂曰：“力田不如逢年，善仕不如遇合”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그 의미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일기가 순조롭지 못하면 오히려 풍년을 만난 것만 같지 못하고, 좋은 벼슬은 자신을 알아주는 군왕을 만나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또 이 속담은 司馬遷의 《史記》卷一百二十五《佞幸列傳》第六十五에도 인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西漢 시기에 이미 민간에 광범위하게 회자되던 유행어라고 생각된다.) 力桑不如見國卿，吾有金，愿以与夫人。”婦人曰：“嘻！夫采桑力作，紡績織紉，以供衣食，奉二親，養夫子。吾不愿金，所愿卿无有外意，妾亦无淫泆之志，收子之齋與筭金。”秋胡子遂去，至家，奉金遺母，使人喚婦至，乃向采桑者也，秋胡子懼。婦曰：“子東甞辭親，往仕五年乃還，當所悅馳驟，揚塵疾至。今也乃悅路傍婦人，下子之裝，以金子之，是忘母也。忘母不孝，好色淫泆，是汚行也，汚行不義。夫事親不孝，則事君不忠，處家不義，則治官不理，孝義并亡，必不遠矣。妾不忍見，子改娶矣，妾亦不嫁。”遂去而東走，投河而死。君子曰：“潔婦精于善，夫不孝莫大于不愛其親而愛其人，秋胡子有之矣。”君子曰：“見善如不及，見不善如深湯。(이 구절은 《論語·季氏篇》第十六에 나오는 孔子의 말이다.) 秋胡子婦之謂也。”詩云：“惟是褊心，是以爲刺”(이 표현

이 기록은 劉向이 당시 민간에서 회자되던 秋胡고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지만 이 내용 중에는 필연적으로 작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漢代의 사회는 유가적인 기풍과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고, 4) 劉向은 바로 이 시기의 경학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가이자 최초의 목록학자로 명성이 높았으며, 또한 宣帝와 元帝, 그리고 成帝의 3대 군주를 섬기던 걸출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이력과 사상은 자신의 정치 및 학술 이념의 기반이 되었고, 또 이러한 그의 신념과 소신이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반영되었다. 〈節義傳〉은 「魯秋潔婦」 고사를 통하여 秋胡妻의 강직한 지조와 충효 및 신의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유가에서 부녀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통하여 秋胡는 자신의 처와 모친에게 불효하고 불의한 아들과 지아비로 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劉向의 유가적인 충효 관념이 秋胡를 효와 의를 망각한 부도덕한 군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반해서 “君子”의 말을 통해 秋胡妻에게 대단히 고결한 도덕적인 롤 모델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또 “頌”의 내용을 통하여 秋胡妻는 당시 봉건사회의 윤리를 수호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각인되는데 비해 秋胡는 음탕한 생각을 품은 부도덕한 군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秋胡妻에 대한 의도적인 과장과 윤색을 통해서 漢代의 충효 관념이 당시 사회에 상당히 보편적인 영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劉向은 秋胡妻에게 당시 사회가 부녀자에게 요구하는 정절과 충효, 그리고 근면성실과 같은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를 겸비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은폐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劉向의 〈節義傳〉 중의 「魯秋潔婦」 고사는 당시의 지배계층의 민간에 대한 권선징악의 보수적인 가치 선양과 선전을 위해 秋胡妻에 대한 의도된 과장과 미화가 첨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詩經》〈國風〉중의 〈魏風〉의 〈葛屨〉 편에 나오는 표현이다.) 此之謂也。頌曰：秋胡西仕，五年乃歸，遇妻不識，心有淫思，妻執无二，歸而相知，耻夫无義，遂東赴河。(張濤 《列女傳譯註》 山東大學出版社，1990，186-188쪽，임동석 역주 《열녀전》 동서문화사，462-463쪽.) 4) 曹祖基 主編 《中國古代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2002，4쪽，武濤時代，中央集權日趨完備，爲了加強精神上的統治，用董仲舒的主張，“罷黜百家獨尊儒術”，鼓吹天人感應，提倡三綱五常。

만일 秋胡고사를 민간의 순수한 로맨스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자신의 처를 한 눈에 분별하지 못했던 과오만 가지고 秋胡의 행위가 배은망덕한 과립치법으로 단죄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긴장한 사내가 결혼 한 지 5일 만에 집을 나섰다가 5년 만에 귀가하는 길에서 採桑하는 여인을 보고 단번에 자기 부인인 줄을 알아채 지 못 한 채 오히려 그녀의 자태에 현혹되어 야릇한 수작을 거는 것을 무작정 탓할 일도 아니다. 이 고사의 비극성은 두 주인공이 혼인 한 지 5일 만에 이별했다가 5년 만에 재회하면서 상호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먼저 알아보고 반기면서 해후를 했더라면 비극적인 긴장미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해피엔딩식의 고사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고사는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당시 시대가 빛은 희생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입장으로 재해석 할 때 이 고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다.

첫째, 秋胡는 자신의 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과 황금을 이용하여 그녀를 유혹하려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그녀에게서 자신이 하는 採桑은 모친과 지아비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차가운 훈계만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즉시 더 이상 치근대지 않고 즉시 현장을 떠나 癡情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秋胡의 대범한 성격으로 인해 바로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의로운 군자의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秋胡는 집으로 돌아 온 아내를 보고서야 사태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색이 되어있을 그에게 秋胡妻는 “길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눈이 팔려 황금과 짐을 주려 했으니 어머니를 저버린 행위”라고 준엄하게 일갈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몰라보고 수작을 건 행위를 확대하여 어머니를 저버린 행위라고 건강부회하면서 秋胡를 용서받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 세우는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셋째, 秋胡는 자신이 희롱하던 여인이 바로 수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을 때 “秋胡는 몹시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秋胡는 최소한 군자로서의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秋胡 아내는 오히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줄 아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秋胡로 하여금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 그래서 西晉시대의 傅玄은 秋胡妻의 물인정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여 “저 남자도 깨끗하지 않을뿐더러 이 부인은 또 너무 완고 하구나”⁵⁾라고 품평을 하였던 것이다.

3. 〈秋胡行〉

漢魏晉 교체시기를 살았던 傅玄(217~278)은 최초로 5언시와 4언시로 〈秋胡行〉 두 수를 지어 秋胡고사를 노래하였다.

1) 〈秋胡行〉 I

추호자는 장가든지 3일 만에 길을 떠났다. 나라의 관리가 되어 높은 관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좋은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國祿으로 친지들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황금도 소장하였다. 예쁘게 생긴 한 부인이 길옆에서 잠상을 하는 것을 목격하자, 마침내 황금으로 유혹하여 그녀를 만나고자 하였는데, 마치 옥을 잘 닦아서 더욱 투명한 것 같았고, 란초의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지는 듯 하였다. 샘의 源流는 맑고 깨끗하였으며, 물에는 탁한 물결이 일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그만 추호가 중도에 사악함에 빠져버렸네. 이렇게 아름답고 지조 높은 부인의 고상한 행실은 높고 우뚝 솟았네. 슬프도다! 가엽게도 홀로 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네.⁶⁾

2) 〈秋胡行〉 II

추호가 어진 처를 맞이하고 3일 만에 타향으로 벼슬살이 떠났네. 부인의 자태는 맑고도 고우며 홀로 외롭게 독수공방 하고 있네. 사랑하는

5) 傅玄《秋胡行》II“彼夫既不淑，此婦亦太剛”

6) 秋胡子娶婦，三日會行。仕宦既亨顯時，保茲德音。以祿而親，鑑此黃金。睹一好婦，采桑路傍。遂下黃金，誘以蓬幽。玉體逾潔，蘭麝芬馨。源流潔清，水无濁波。奈何秋胡，中道懷邪。美此節婦，高行巍巍。哀哉可愍，自投長河。

는 부부가 함께 밤을 새우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마치 參星과 商星처럼 떨어져 있구나.

근심이 마치 사해에서 찾아오는 듯 하고, 쉽게 변하는 감정은 지켜 내기 어렵다네. 사람들은 사는 날이 짧다 말하지만, 긴 밤이 고통스럽다고 근심한다네. 백초가 봄꽃의 향기를 진동시킬 제, 소매를 걷고 부드러운 뽕잎을 따다네.

흰 손이 많은 가지를 훔 뒀지만 뽕잎은 광주리에 차지 않았네. 비단 옷으로 옥체를 가리고, 돌아보는 눈매에 고운 빛이 흐르네. 군자는 벼슬살이에 지쳐 돌아오는데, 수레와 말들은 힘차게 내달리고 있구나.

정성을 다해 만 리 길 달려왔건만 이미 두 사람 서로 기억하지 못하네. 행인은 미모에 반하여 뽕나무 옆에서 쉬어가기를 청하고, 높은 관리 만남을 비유로 유혹하여 마침내 황금과 행장을 내려놓았네.

매서워라 정숙한 부인의 분노, 근엄한 언사는 추상같다네.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와 황금을 받쳐 들고 북당으로 오르네. 모친은 곤장 일어나서 머느리를 불러오도록 분부하고, 기쁜 심정에 즐거움 다하지도 않았네.

추호가 자기 부인을 보자 마치 끊는 물속에서 손을 피하듯이 조심하였다네. 사랑을 저버린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영원한 맹세란 기대할 바가 못 되네. 맑고 흐린 것은 반드시 근원이 다르고 물오리와 봉황새는 함께 날수 없다네.

자리에서 물러나 강물에 몸을 던지니 진실로 순결한 부인의 마음이 라네. 저 남편도 깨끗하지 않을뿐더러 이 부인은 또 너무 완고하구나.⁷⁾

7) 秋胡納舍室，三日官他鄉。皎皎潔婦姿，泔泔守空房。燕婉不終夕，別如參與商。(燕婉：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지칭함. 參和商：이십팔과 성파 중의 별 이름으로 “參星”과 “商星”을 지칭함. 이 두 별은 함께 떠서 상호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지인거리 오래 헤어져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상호 간에 불복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비유하는 데 상용된다.)

憂來猶四海，易感難可防。人言生日短，愁者苦夜長。百草揚春華，攢腕采柔桑。素手尋繁枝，落葉不盈筐。羅女翳玉休，回目流采章。君子倦仕歸，車馬如瓏駟。精誠馳万里，既至兩相忘。行人悅令顏，情息此憐憐。誘以蓬幽喻，遂下黃金裝。烈烈貞女容，言辭爽秋霜。長驅及居室，奉金升北堂。母立呼婦來，歡對清樂未央。秋胡見此婦，惕然忤深腸。負心豈不慚，永誓非所望。清濁必異源，鳧鳳不并翔。引身赴長流，果哉潔婦腸。彼夫既不淑，此婦亦太剛。(徐陵編《玉臺新咏》上華夏出版社，1998，78-80쪽 참조. 서용된 권혁석 역 《옥대신영》，소명출판，2006，229-232쪽 참조.)

먼저 〈秋胡行〉 I 중의 개략적인 의미는 〈節義傳〉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傅玄은 유행보다 더욱 더 분명하게 秋胡妻의 지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치 옥을 잘 닦아서 더욱 투명한 것 같았고, 란초의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지는 듯 하였다. …… 이렇게 아름답고 지조 높은 부인의 고상한 행실은 높고 우뚝 솟았네.” 이렇게 傅玄은 秋胡妻를 “옥과 난초”에 비유하며, 그녀의 행동거지에 대해 극도의 찬사와 예우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반해 秋胡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節義傳〉보다 더 한층 강렬한 비평을 하고 있다. 〈節義傳〉 중에는 秋胡가 “처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 품었네.”라고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傅玄은 〈秋胡行〉 I 중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만 추호가 중도에 사악함에 빠져버렸네.”라고 하여 秋胡를 더욱 더 타락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秋胡行〉 II의 내용은 〈秋胡行〉 I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인 수식과 비유를 통하여 고사를 더욱 애절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의 줄거리는 크게 이별과 해후, 그리고 殉節의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秋胡와 혼인하고 사흘 만에 이별한 秋胡妻의 심경에 대한 애절하고 眞摯한 묘사이다. “부인의 자태는 맑고도 고우며 홀로 외롭게 독수공방하였다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밤을 새우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 마치 參星과 商星처럼 떨어져 있구나!” 이 표현에는 남편과 혼인하고 사흘 만에 헤어졌지만 조금도 좌고 우면하지 않은 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기품있는 모습과 동시에 오랜 이별로 수심에 차 있는 潔婦의 형상이 잘 그려져 있다. 특히 서로 오래 떨어져 있음을 “參星”과 “商星”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남편의 외국 出仕로 인해 수절하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秋胡妻의 입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별 후, 秋胡를 그리워하는 秋胡妻의 심중과 부인을 그리워하는 秋胡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흰 손이 많은 가지를 훔 텃지만 뽕잎이 광주리에 차지 않았네. …… 군자는 벼슬살이에 지쳐 돌아오는데, 수레와 말들은 힘차게 내달리고 있구나!” 이것은 집에서 홀로 모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뽕잎을 따

고 있지만 심중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이 더더거 뽕잎이 광주리에 잘 차지 못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 秋胡妻의 秋胡에 대한 그리움에 대응하듯이 秋胡도 오래 동안의 벼슬살이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지만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원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秋胡는 길에서 마주친 여인이 자신의 아내인줄도 모르고, 그만 미모에 빠져 쉬어 가기를 청한 뒤에 은근히 수작을 건네다가 한 마디로 거절당한다. “정성을 다해 만 리 길 달려왔건만 이미 두 사람 서로 기억하지 못하네. …… 매서워라 정숙한 부인의 분노, 근엄한 언사는 추상같다네.” 몇 년 동안 아내를 보지 못했던 秋胡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신속히 귀국길에 올랐지만 정작 해후한 뒤에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역시 〈節義傳〉의 기록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傅玄은 秋胡의 유혹을 받았던 秋胡妻가 아주 근엄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더욱 더 냉정한 여인상으로 변화시켰다. 세 번째 단계는 모친에게 인사올린 秋胡가 길에서 수작 걸었던 여인이 바로 자신의 처임을 발견하자 당황해하면서 수치를 느끼고, 또 전말을 알게 된 秋胡妻가 殉節하는 장면이다. “秋胡가 자기 부인을 보자 마치 끓는 물속에서 손을 피하듯이 조심하였다네. 사랑을 저버린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 자리에서 물러나 강물에 몸을 던지니 진실로 순결한 부인의 마음이라네. 저 남편도 깨끗하지 못할 뿐더러, 이 부인은 또 너무 완고하구나!”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節義傳〉 중의 秋胡의 형상을 가감 없이 그대로 모방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秋胡의 변절을 크게 책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傅玄은 앞의 두 기록과 달리 최초로 “지나치게 완고하구나”라는 표현을 써 秋胡妻의 물인정한 행위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품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傅玄의 秋胡와 秋胡妻에 대한 극명한 포폄관은 당시 사회에 지나치게 만연된 방종과 쾌락에 대한 유학자의 자성에 따라 복고적인 유가 문화의 부녀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4. 《西京雜記》

東晉 시대에 이르러 葛洪(284-364)도 《西京雜記》중에서 秋胡 고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葛洪의 《西京雜記》는 西漢 시기의 역사와 일화를 기록한 필기소설집으로 劉向이 기록한 《節義傳》에 비해 약 300년 이후에 저술되었다. 《西京雜記》의 기록 중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내용도 많지만 어떤 내용들은 오히려 역사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⁸⁾ 葛洪은 13세에 조실부친 한 이후 모친을 도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검독학으로 다양한 사상을 두루 섭렵하여 도교의 영수가 되었으며, 학문연구에 정진하였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관직을 사양하고 산에 칩거하여 연금술과 의술을 연마한 鍊金家이면서 의술가로서 고대 중국의 예방의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다양한 경험과 근검한 기질로 미루어 보아 秋胡고사를 저술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追隨하기보다는 평범한 약인의 입장에서 사실에 가깝게 접근하려 시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쯤나라 추호는 장가든지 석 달 만에 벼슬살이 하러 떠난 뒤 3년 만에 휴가를 얻어 귀가할 때에 그의 부인은 들에서 잠상을 하고 있었다. 추호가 교외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에게 한 눈에 반해 황금 20냥을 건네어 유혹하였다. 이에 그녀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지아비가 있는데 벼슬살이 하러 떠나 돌아오지 않아 홀로 어두운 방에서 독거하며 이곳에서 3년을 사는 동안에 오늘 처럼 치욕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뽕을 따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자 추호는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를 물러갔다. 집에 이르러 하인에게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교외로 잠상하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가 돌아오자 바로 그가 회롱하던 그 여인이었다. 夫婦는 함께 부끄러워하였고, 결국 추호 처는 沂水⁹⁾로 달려가 투신하였다.”¹⁰⁾

8) 《古小說叢刊》中華書局 1979. “此書，歷代皆爲偽書，但從語氣及內容看，尙是雜抄漢魏六朝佚史而成。所述西漢之事，怪誕不經，多不足信。但有關南越趙佗獻宗于漢朝，昭君出塞前后漢宮畫師事迹，劉邦筑新丰以迎太公，漢俗五月五日生子不舉，鄧通得蜀山以鑄銅錢，茂陵富人貧”漢莊園之奇，司馬遷有怨言下獄死，劉子駿作《漢書》諸事，均可開闢思路，有裨研史”
9) 沂水: 山東에서 발원하여 江蘇로 유입하는 강.
10) 昔魯人秋胡。娶妻三月而游宦。三年休還家。其婦采桑于郊。胡至郊而不識其妻也。見而悅之。乃遺黃金一鎰(鎰[yì]: 무게단위, 20량(兩). 일설에는 24량이라고도 함.) 妻曰:妾有夫游宦不返。幽閨獨處。三年于茲。未有被辱如今日也。采不顧。胡慚而退。至家。問家人妻何在。曰:行采桑于郊未返。既還。乃向所挑之婦也。夫妻并慚。妻赴沂水而死。(《西京雜記》卷六 葛洪, 《筆記小說大觀》第1冊 江蘇“陔古籍刻印出版 1983, 12-13쪽. 《西京雜記》卷六 葛洪, 中華書局, 1985, 43-44쪽. 《서경잡기》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09, 330-333쪽.)

葛洪의 기록은 《節義傳》의 기록에 비해 훨씬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또 내용상에 있어서도 《節義傳》을 모방하여 양자 간에 분명한 상이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접점은 《節義傳》기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節義傳》에는 결혼한 지 5일 만에 출가하여 5년 만에 귀가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西京雜記》중에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출가해서 3년 만에 귀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네 준 황금이 20냥이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둘째, 秋胡가 황금으로 상대를 유혹하면서 말하는 구체적인 언사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녀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의 모습을 《節義傳》에서는 “秋胡가 몹시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한 반면, 이곳에서는 “秋胡는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를 물러갔다”라고 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葛洪은 秋胡가 자신의 과오를 즉시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바른 군자의 모습으로 부각시키려고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葛洪은 秋胡가 회롱했던 여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되자 “夫妻가 함께 심히 부끄러워하였으며, 이에 秋胡 처는 沂水로 달려가 투신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節義傳》의 “秋胡子慚”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고사의 서술 형태로 어느 일방의 실수가 아닌 부부간의 상호 과오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즉 秋胡가 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秋胡妻의 감정적인 처신에서 비롯되었음을 暗黙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葛洪은 秋胡가 비록 자신의 처임을 알지 못한 채 회롱을 했다고 했지만 劉向이 강조한 秋胡의 일방적인 과오에서 벗어나 부부간의 상호 책임으로 분담하는 세심하고 합리적인 수법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秋胡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을 당한 후에 자신의 행위가 부도덕한 처신임을 즉시 깨달았고, 자신의 처를 보자 더욱 더 부끄러운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이는 《節義傳》의 일방적인

10) 昔魯人秋胡。娶妻三月而游宦。三年休還家。其婦采桑于郊。胡至郊而不識其妻也。見而悅之。乃遺黃金一鎰(鎰[yì]: 무게단위, 20량(兩). 일설에는 24량이라고도 함.) 妻曰:妾有夫游宦不返。幽閨獨處。三年于茲。未有被辱如今日也。采不顧。胡慚而退。至家。問家人妻何在。曰:行采桑于郊未返。既還。乃向所挑之婦也。夫妻并慚。妻赴沂水而死。(《西京雜記》卷六 葛洪, 《筆記小說大觀》第1冊 江蘇“陔古籍刻印出版 1983, 12-13쪽. 《西京雜記》卷六 葛洪, 中華書局, 1985, 43-44쪽. 《서경잡기》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2009, 330-333쪽.)

과립치한 선비의 모습에서 즉시 과오를 인정하는 대범한 군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葛洪은 秋胡에 대한 이미지와 형상 변화를 통하여 劉向이 설정한 위선적이고 무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말의 양심을 지닌 도덕적인 군자의 모습으로 재창조 하였다.

5. 〈秋胡謔詩〉

南北朝 시기에도 많은 문인들이 이 고사의 비극적 애정 스토리에 치중하여 종래의 封建 禮敎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애정의 입장에서 秋胡고사를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南朝 晉宋시기에 이르러 顏延之(384-456年)가 〈秋胡謔詩〉라는 최초의 敘事詩를 지어 秋胡載妻 고사를 詠嘆하였다. 이 시는 모두 9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 장은 10구로 편성되어 각각 秋胡와 秋胡妻의 自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 벽오동과 오동은 봉황위해 가지 기울이고, 寒谷은 피리 연주를 기다리네. 몸과 그림자, 소리와 메아리가 어찌 그리워하지 않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상호 어울린다네. 미모가 정숙한 저 여인은 결국은 내 집으로 시집을 왔네. 준엄한 절의는 추상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자태는 아침 해를 닮았네. 祥運이 이미 나를 따라오니 이로써 내 기쁜 소망 이루어졌네.¹¹⁾

2) 신흠의 달콤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집 떠나시네. 갈건을 벗고 천리 밖에 가서 인수를 매고 陳나라의 관리가 되었네.

11) 椅梧傾高鳳, 寒谷待鳴律。(鳴律: 진하는 바에 따르면 전국시대 燕나라에 황량한 계곡인 “寒谷”에서 오곡이 잘 자라지 않자 이에 鄒(周 代의 諸侯國名, 현재 山東省의 鄒縣)지방에서는 律管이라는 관악기를 불어 온화한 기운을 보내 오곡이 자라 났다고 한다. 律管으로 차가운 계곡에 훈풍을 불어오게 하는 것도 부부간의 결합에 비유됨.) 影響豈不怀?(影響: 그림자와 메아리. 몸과 그림자는 떨어 질 수 없고, 소리와 메아리도 분리될 수 없으므로 역시 부부간의 결합을 의미함.) 自違每相匹. 婉彼幽閑女, 作媛君子室. 峻節貫秋霜, 明艷伴朝日. 嘉運既我從, 欣愿自此舉.

하인에게 새벽에 떠날 체비를 시키자 시종들이 상호 의지하러 오네. 수레 몰아 교외 성곽을 나서자 갈 길이 아득하고 끝이 없구나. 살아서 오랫동안 이별이니, 죽은 뒤는 영원히 귀향하 지못하리.

3) 아! 나는 고된 행역을 원망하면서 힘든 여정으로 아침저녁을 보낸다네. 힘차게 수레를 몰아 추위와 바람을 극복하고 말을 멈추자 서리와 이슬이 엄습하네. 광활한 습지가 더욱 더 처량하게 만들고, 회오리바람 큰 나무를 휘감아 도네. 헤어진 짐승은 황폐한 길에서 뛰어나고 놀란 새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슬프도다! 벼슬살이 하러 떠난 신세, 이런 산천의 노경에서 고생하고 있네.¹²⁾

4) 아득히 떠난 임은 먼 곳에 있고, 시간은 돌고 돌아 한 해가 지나가네. 좋은 시절에 이처럼 이별하여 日月도 바야흐로 저물어가네. 추위 더위 쌓인 세월 누가 알리요? 그저 순식간에 초목이 무성했다 시드는 것이 보인다네. 세월에 이르러 독수공방하자니 찬바람이 의자 구석을 쓸어 올린다. 잠에서 깨어보니 날이 이미 추워져 흰 이슬이 정원의 잡초위에 맺혀 있네.¹³⁾

5) 공무를 수행하다가 귀향 꿈을 이뤘, 산과 강을 따라 돌아간다네. 지난 날 떠날 때는 나무 잎이 조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초목이 무성한 봄 날 일세. 蠶桑하는 철에 틈을 내 구경하니, 뽕나무들에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네. 아리따운 여인이 열심히 일하며 우아한 자태로 높은 가지 잡고 있네. 누군들 미녀를 돌아보지 않을까, 잠시 수레를 길 가운데 멈춰 세우네.¹⁴⁾

12) 嗟余怨行役, 三陟窮晨暮. 嚴駕越風寒, 解鞍犯霜露. 原隰多悲涼, 回瀾卷高樹. 凶獸起荒溪, 惊鳥縱橫去. 悲哉旃旆子, 勞此山川路.

13) 超遙行人遠, 宛轉年運阻. 良時爲此別, 日月方尚除. 孰知寒暑積, 僂俛兒榮枯!(僂俛: =俯仰. 눈으로 아래를 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을 지칭하는데, 아주 짧은 순간 혹은 여인의 용모의 변화를 비유함.) 歲暮臨空房, 涼風起坐隅. 寢興日已寒, 白露生庭茨.

14) 勤役從歸怨, 反路遶山河. 昔昔秋未素, (辭: “辭”의 譌記. 헤어지다. 未素: “素”는 가을을 지칭하기 때문에 “未素”는 나무 잎이 아직 조락하지 않았음을 비유함.) 今也歲載華. 蚤月觀時暇, 桑野多經過. 佳人從所務, 窈窕凌高柯. 傾城誰不顧, 弭節停中阿.

6) 해가 바뀔수록 진실로 그리움에 고달픈데, 일터가 서로 멀어 음성과 자태가 아득하구나. 비록 오년 동안 헤어져 살았지만 함께 살던 젊은 모습 분명치 않네. 수레를 버려두고 옛길 따라 걷다가 들오리가 수초를 희롱하듯 재빨리 아득한 눈길 서로 마주쳤네. 남방의 황금을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리? 즉시 스스로 하찮게 여기네. 의로운 마음으로 고언을 많이 하니, 거절하는 말은 金玉의 소리에 비교되네.¹⁵⁾

7) 높은 절개로 오랫동안 머물기 어려워, 왔다 갔다 부질없이 말만 많았네. 천천히 여정을 모두 끝내고 아쉬운 듯 대문 앞에 도착하였네. 안채에 올라 모친을 배알하고, 내실로 들어가 어디 갔는지 묻는다네. 헤쳐물녘 採桑에서 돌아오니 시간은 이미 일몰이 되었네. 아리따운 여인이 황혼 녘 집에 도달하자, 수치스럽고 한탄스럽지만 앞으로 가 부인을 부축하네.¹⁶⁾

8) 그리운 생각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으리? 잠시 고난의 세월 하소연하네. 고독한 생활로 여러 해가 지나가고, 한 번 이별에 산과 강이 가로막았네. 봄이 와도 계절의 기쁨 느낄 수 없고, 가을이 와도 항상 빨리 추워졌네. 동 뜰 때부터 수심이 밀려오자, 내실에서 일어나 장탄식하네. 쓸쓸하게 해가 막 기울 때, 석양 이 추호 얼굴위로 비추는 듯.¹⁷⁾

9) 비파의 고음은 현이 끊길 때 생기고, 급한 소리는 높은 음조에서 생겨나네. 지난 날 빛나는 풍채 굽히시고, 본래 평생 偕老하기로 언약했네. 어찌 오랫동안 이별한 후에, 모든 품행 안에 자신의 죄가 있네. 군

15) 年往誠思勞, 事過兩音形。(閨: 거리가 아득히 멀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헤어 진지 오래 되었음을 비유함。)雖爲五載別, 相與味平生。舍車違往路, 覺藻馳目成。(覺藻: 들오리가 수초를 희롱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오리와 수초 관계처럼 남녀가 서로 마 음이 통함을 비유함。目成: 상호 마음에 드는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이룸。)南金豈不重? 聊自意所輕。義心多苦調, 密比金玉聲。(金玉聲: 인사가 결연하고 맑은 소리. 여기서는 추호치의 언행을 金玉 소리에 비유함.)
 16) 高節難久淹, 邇來空交辭。遲遲前盡盡, 依依造門基。上堂拜嘉慶, 入室問阿之。日暮行采桑, 物色桑榆時。(物色: 경치, 광경 桑榆: 뽕나무와 느릅나무, 일몰을 지칭(석양이 뽕나무와 느릅나무를 비추는 시간을 비유하기 때문에 "日沒"의 의미를 지님).)美人望昏至, 柳嘆前相替。
 17) 有怀誰能已? 聊用申苦難。處居殊年載, 一別阻河關。春來無時豫, 秋至恒早寒。明發動愁心, 閨中起長嘆。慘淒歲方晏, 日落游子顏。

자(추호)께서 덕망과 절개를 상실했는데, 누가 평생토록 헤로하리요!
 저 행로시를 생각하자 부끄러워, 기꺼 이 큰 강으로 몸을 던졌다네.¹⁸⁾

첫 장은 신혼의 환희와 기대를 노래한 秋胡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전체시를 관통하는 애정의 基調가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특히 秋胡의 妻에 대한 찬미와 감탄의 표현을 통하여 종래의 기록보다 秋胡妻에게 서술의 초점이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결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梅梧, 鳴律, 影響”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작자는 秋胡에게도 상당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은 신혼의 환락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신양명을 위해 길을 떠나는 秋胡에 대한 원망과 탄탄이 담긴 秋胡妻의 독백이다. “신혼의 달콤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집 떠나시네.” 고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볼 때 남편의 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신혼의 소중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인간적이면서 순박한 秋胡妻의 모습이 투영돼 있는 진솔한 표현이다.

셋째 장은 벼슬살이 떠난 秋胡가 길 위에서 겪는 갖은 고초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슬프도다! 벼슬살이 하러 떠난 신세, 이런 산천의 노정에서 고생하고 있네” 상대적으로 혼자 집에 남아 남편이 겪는 고통스런 과정을 전혀 알 리 없는 秋胡妻가 종일토록 집에서 독수공방하며 남편에 간절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넷째 장은 秋胡妻가 남편과의 이별 후에 나날이 겪는 辛酸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좋은 시절에 이처럼 이별하여 日月도 바야흐로 저물어가네” 이 표현을 통해서 작자가 신혼의 기쁨을 무시하고 이별 길을 선택한 남편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원망과 고초의 심정을 반영하려고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18) 高張生絕弦, 聲急由調起。自昔枉光塵, 結言固終始。如何久爲別, 百行儻諸己。君子失明義, 誰與偕沒齒! 愧彼《行露》詩, (《行露》: 《詩經·召南》의 《行露》篇. 정숙한 한 여인이 무도한 남자와의 강제 혼인에 걸 연히 반대하는 것을 서술한 노래. 후에는 여자가 스스로 수절을 서약하는 전고로 사용됨.)甘之長川記。)(陳廷天 主編 《昭明文選》 第三冊 吉林文史出版社, 1994. 김영문 외 5인 《文選譯註》 소명출판, 2011 참조.)

이상의 네 장의 표현은 전편의 배경부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秋胡와 그의 妻가 신혼 후에 각자 겪는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다섯째 장은 오랫동안 타국에서 벼슬살이 하던 秋胡가 옛길을 따라 득의양양하며 귀국하는 모습이다. 떠날 때와 돌아 올 때의 秋胡의 달라진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꿈에 그리던 목표를 성취하고 귀국하는 고향의 뽕나무들에서 蠶桑 철로 분주한 여인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아리따운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멎으며 묘한 흥분과 충동을 느끼는 秋胡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섯째 장은 秋胡妻가 秋胡를 애뜻하게 그리워하는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고, 또 秋胡가 妻를 회통하는 고사의 핵심적인 표현이 등장한다. “수레를 버려두고 옛길 따라 걷다가, 들오리가 수초를 회통하듯 서로 재 빨리 눈길 마주쳤네. 남편의 황금을 어찌 귀히 여기지 않으리? 즉시 스스로 하찮게 여기네. 의로운 마음으로 고인을 많이 하니, 엄밀한 언행은 金玉의 소리에 비교되네.” 秋胡가 마음이 다급해서 수레를 버려두고 미모의 여인 가까이 다가서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의 심중에 격정이 이는 시선을 주고받는다. 작자는 이 장면을 마치 들오리가 수초를 회통하는 장면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여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로맨스의 유희 같은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는 秋胡가 황금을 이용하여 유혹하려 하자 즉시 거절하면서 쓴 소리와 준엄한 언행으로 秋胡를 훈계하며 비판하는 모습을 통해 秋胡妻가 고사의 중심인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장은 秋胡가 採桑하고 있는 여인을 유혹하지만 그녀가 고고한 지조로 제안을 거절하자 결국 秋胡가 귀가하여 겪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秋胡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통을 하고, 秋胡妻는 어떻게 유혹을 거절했는지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다만 행간사이에서 슬픔과 원망의 정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귀가한 秋胡가 모친께 귀국 인사를 마치고 나서 자기 부인이 어디 갔는지를 묻고 있을 때 석양 무렵에 막 귀가하는 부인을 대면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부인임을 식별하고 놀래어 수치를 느끼는 모습에서 가련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작

자가 秋胡의 과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치스럽고 한탄스럽지만 앞으로 가 부인을 부축 하네”라고 표현하였지만, 부인의 면전에서 혼비백산하는 장면을 통해 오히려 秋胡의 추태가 더욱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작 눈앞에 나타난 부인이 뜻밖에 자신이 회통하던 採桑女였음을 발견하고, 놀라 당황하지만 일말의 양심과 미안함 때문에 다가가 “부축한다(相持)”는 표현으로 독자들은 작품의 정경이 도래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여덟째 장은 秋胡妻의 秋胡에 대한 원망과 수치스런 심정으로 이별한 후 5년 동안 겪었던 절망과 서러움을 묘사한 내용이다. “봄이 와도 제철의 기쁨 느낄 수 없고, 가을이 와도 항상 빨리 추워지네.” 화사한 봄 날 남편과 함께 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편이 없으니 가을만 되면 마음이 허전해 등이 시린 여인의 비통함과 애절함이 잘 드러나 있다. 또 긴긴 밤 숙면하지 못하고, 동이 틀 때 수심으로 일찍 잠에서 깨어 장탄식하고, 쓸쓸한 석양 무렵에 마치 햇살이 秋胡의 얼굴을 비추는 듯한 묘사를 통해 남편에 대한 간절한 애증이 秋胡妻의 심중에 교차하도록 설정하여 나약한 여인의 순수한 인간미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 장은 앞의 넷째 장의 신혼 후의 이별을 통해 秋胡妻가 겪었던 辛酸한 심정에서 진일보하여 5년 동안의 이별로 인한 자세한 속사정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두 장이 절묘한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아홉째 장은 秋胡妻의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 강에 몸을 던지는 장면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첫째 장의 比興의 수법이 마지막 장의 첫 구절에 다시 한 번 이용되어 평생 偕老하기로 언약한 秋胡의 절개와 신뢰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秋胡妻는 결국 이별한 후 秋胡가 저지른 모든 품행을 준엄하게 비판하면서 덕망과 절개를 상실한 남편과 더 이상 偕老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강물에 투신하면서 고사를 종결짓는다. 여기서 秋胡妻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작자는 더 이상 秋胡妻가 秋胡의 불충과 불효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평생 偕老를 언약한 애정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죽음의 원인마저 바꾸어 놓았다.

이상에서 감상해 본 바와 같이 顏延之의 〈秋胡詩〉는 이전의 기록들과 달리 장

과 장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서사의 전개와 구조가 긴밀히 상응하여 독자로 하여금 절묘한 긴장감과 함께 진한 감동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각 장마다 秋胡와 秋胡妻의 自述 형식으로 구성되어 마치 살아있는 인물의 실존 형상 같은 느낌을 갖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기록들이 대부분 秋胡의 행위를 불효라고 하는 封建禮教의 범위 안에 속박하려고 했던 편견에서 탈피하여 〈秋胡詩〉는 시종일관 애정으로 시작하여 애정으로 귀결하는 낭만적인 창작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6. 〈秋胡變文〉

唐代에 이르러 秋胡고사는 〈秋胡變文〉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묘사와 사상의 변화를 거치며 더욱 진일보한 발전을 한다. 비록 고사의 전후에 殘缺이 심하여 고사의 전모를 완벽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잔존하는 三千餘字로 구성된 작품의 내용들을 통하여 비교적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秋胡變文〉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여 기존의 작품과 달라진 변화와 창작상의 특성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1) 求學의 선언과 이별:

- (1) 秋胡가 모친께 몇 년 간 출향하여 학문에 정진한 뒤에 반드시 관직에 올라 금의환향 하겠다고 다짐한다.
- (2) 母子別: 사마상여와 소진의 출세고사를 소개하며 자신도 3년 간 공부를 하러 출국하니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 ① 모친의 만류: 부모가 집에 계실 때 자식이 멀리 떠나면 안 된다. 유가의 경전을 인용하며 홀어미를 두고 공부를 하러 출타하는 것을 심사숙고 하도록 훈계한다.
- ② 秋胡의 설득: 부모를 떠나 공자를 모신 증삼과 집안이 빈천했던 태공의 근면한 求學으로 출세한 고사를 인용하며 다시 모친을 설득한다.
- ③ 모친의 허락: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불안감에 빠진

年老年老한 홀어미의 나약한 심정이 측은한 머느리까지 거론하며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秋胡의 고집에 결국 양보한다.

(3) 新婚別: 이미 남편이 떠날 것을 예감한 秋胡妻는 단정한 자세로 秋胡를 맞이하며 이별의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 ① 秋胡는 세속의 부부의 인연은 金蘭의 정으로 맺어진 것이고, 사후에는 함께 합장하여 흙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위로하며 맹세한다.
- ② 秋胡妻는 남편에게 집안의 아들이란 수중에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활동해야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설득하면서 秋胡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지지한다.
- ③ 秋胡는 논어와 효경, 장자와 예기 등을 비롯한 경전을 싸들고 장도에 오른다.

2) 入山求學: 深山幽谷에 이르러 九經과 七略에 통달한 老仙을 만나 3년간 師事하여 九經에 능통하였다.

3) 求官上奏: 魏나라의 陳王을 알현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충성스런 신하가 될 수있음을 고백한다.

- (1) 度周와 太公, 巢父와 許由의 출사 고사를 上奏하면서 出仕를 주청한다.
- (2) 陳王은 秋胡를 신임하고 좌상에 제수한 뒤 삼천호의 봉지와 십만량의 상금, 노비들을 하사받는다.
- (3) 수년 뒤 秋胡가 변경을 평정하고, 도적들을 제압하자 황제에게 감사하는 노래가 불려진다.

4) 秋胡妻의 효심과 改嫁의 권유:

- (1) 秋胡妻는 남편이 집을 나선 이래 육 년간 종살이와 누에를 치 가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시중한다.
- (2) 모친은 육 년간 소식 없는 秋胡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 진 머느리를 위안하며 개가를 권유한다.
- (3) 秋胡처는 改嫁를 권유받자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귀가와 관계없이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극진히 섬기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5) 秋胡의 귀국 간청: 위나라에서 육 년간 충성을 다해 陳王을 보좌하였는데, 돌연 모친에 대한 상념으로 인해 귀국을 간청한다.

- (1) 秋胡는 董永과 郭巨, 그리고 巢父의 지극한 효성을 왕께 비유로 들면서 홀로 된 모친 혼자 자신을 키웠는데, 이제 생사조차 알 길이 없으니 귀국하여 보은할 수 있도록 읍소한다.
- (2) 陳王은 秋胡의 주청에 감동하여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귀국을 허락하지만 속히 돌아오도록 당부한다.

6) 부부 邂逅: 금의환향하던 秋胡가 뽕나무 숲 사이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 자신의 아내인 줄도 모른 채 한 눈이 팔려 수작을 건다.

- (1) 蘇籍: “뽕은 봄철의 복숭아와 자두보다 더 아름답고, 몸은 백옥 같은 눈과 서리처럼 눈부시구나!” 라는 시를 지어 바친다.
- (2) 유혹: “아가씨! 뽕잎을 따는 것은 소년을 만나는 것만 같지 못하고, 힘들게 밭일을 하는 것은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면서 황금 두 냥과 비단 한 다발로 유혹한다.
- (3) 부부간의 응대: 秋胡妻와 秋胡는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대응한다.
 - ① 유혹거절: 秋胡妻는 “한 마리 말에 두 개의 안장을 엮는 법이 없고, 한 마리 소가 어찌 두 대의 수레를 끌겠습니까?” 라는 비유를 들고, 또 만일 남편이 갑자기 귀가한다면 오히려 수치스러워 청빈하게 살다가 죽겠노라고 거절한다.
 - ② 秋胡의 대응: 자신의 아내가 한 말 인줄도 모른 채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史書 에 올려 만대에 전할 만한 열녀라고 칭찬한다.

7) 母親상봉:

- (1) 모친은 秋胡가 집에 당도했지만 아직 영문을 모른 채 죽었는지? 살았는지? 장탄식을 하다가 방안에 들어선 아들을 맞닥뜨린다.
- (2) 아들과 상봉 후, 秋胡의 성공과 출세는 효성이 지극한 아내의 공로 덕분 이라고 머느리를 칭찬한다.

8) 夫婦재회:

- (1) 秋胡妻는 남편의 귀가 소식에 기쁘고 반가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찾는다. 그리고 시집 올 때의 모습으로 화장하고 치장하고서 어머니와 함께 기쁨을 나눈다.
- (2) 秋胡妻가 남편에게 예를 갖추고 응시하자 바로 낮에 뽕나무 숲에서 자신을 희롱하던 선비인지라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눈물을 흘린다.
- (3) 모친은 秋胡를 보기도 기뻐하지 않는 머느리를 보고 혹시 이웃에 연모하는 사내가 생겼기 때문이 아닌 가 의심한다.
- (4) 秋胡妻는 너무 억울하여 울면서 아들이 만일 효자라면 하사받은 황금을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미 뽕나무 밭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자 했으니 秋胡는 나라에 불충하고, 어머니에게 불효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¹⁹⁾

이상의 개관으로 알 수 있듯이 〈秋胡變文〉은 이전의 기록들과 달리 편폭의 길이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첨가되었다. 특히 唐代의 문화와 생활상의 특징 및 사회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 〈秋胡變文〉 중의 秋胡는 강요에 의해서 집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집을 떠나는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조정의 재상과 귀인들을 보니 모두 학문에 힘을 쏟아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었다.”²⁰⁾ 秋胡는 이 말을 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 금의환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唐代에 과거제도를 통하여 서민이 관직에 등용되었던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秋胡는 모친에게 집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孝”를 구실로 삼는다. 모친은 秋胡에게 “부모가 집에 계시는 자식이 멀리 떠나서는 안 되며, 실사 떠나더라도 가는 곳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는 유가의 경전을 이용하여 출국을

19) 張湧泉 黃征 校注 《敦煌變文校注》 中華書局, 1997, 232-242쪽 참조. 이하의 내용은 殘缺이 심하여 더 이상 상세히 추정할 수 없다.

20) 《敦煌變文校注》 232쪽. “我見在朝宰貴, 皆從聽學□□(起家) 《敦煌變文校注》에서 빈 두 칸의 글자는 “起家”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대에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起家”라고 하였으며, 후에는 초임의 관직을 “起家”라고 한데서 유추한 것인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만류한다. 이에 秋胡가 “증삼은 효성이 지극하였지만 부모를 떠나 공자를 모시는 데 추후도 나태하거나 싫증내지 않고, 종일토록 삼사를 파헤치고 구경에 통달하여 훌륭한 종사로서 이름을 만대에 날렸다고 들었습니다.”²¹⁾라는 증삼의 고사에 자신을 비유하며 적극적으로 출사의 길을 고집하며 어머니의 의견을 반대한다. 이와 같은 풍조는 개방을 특성으로 하는 唐代 사회가 개인의 의지를 널리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秋胡妻의 모습은 정절과 부덕을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부녀자의 형상으로 강조되었다. “딸은 태어나면서 밝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 불원천리하고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니 이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여 좋은 싫든 당신의 처분을 따르겠어요. 그대가 장차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²²⁾ 이는 唐代의 부녀자들이 남편의 출사와 공명을 위해 순종하고, 온유한 부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다. 때문에 〈秋胡變文〉 중에 드러난 秋胡부부의 모습은 당시 대다수 부부의 공동적인 운명의 반영이며, 秋胡妻는 남편을 위해 독수공방하는 怨婦의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전의 기록들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줄거리가 첨가되어 고사의 참신한 생명력과 비극적인 긴장미를 불러일으킨다. 秋胡 모친은 아들이 약속한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자 며느리를 불러 다음과 같이 改嫁를 권유한다. “더 이상 신부가 홀로 자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독수공방해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改嫁한다고 해도 네 뜻을 따를 것이다. 내가 감히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 없으며, 신부의 속내가 어떠한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²³⁾ 改嫁를 권유하는 내용은 〈秋胡變文〉에서 처음 발생한 독창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改嫁가 허용되는 唐代의 개방된 사회구조 하에서 신혼 후 장기간 독수공방하는 여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작자가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21) 같은 책 232쪽. “秋胡重啓阿孃曰：「兒聞曾參至孝，離背父母侍仲尼，無□(有)懈倦，終日披尋三史，洞達九經，以顯先宗，留名萬代」《敦煌變文校註》에서 빈 칸의 글자는 “有”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2) 같은 책 232쪽. “女生外向，千里隨夫，今日屬配郎君，好惡聽他處分。郎君將身求學，此願兒本情。”

23) 같은 책 233쪽. “不可長守空房，任從改嫁他人。阿婆終不教留住，未審新婦意如何？”

리나 秋胡妻는 改嫁를 권유하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 부모가 짝을 지어주신 것은 본래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학업을 하러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오로지 종신토록 어머니를 공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改嫁의 일을 언급하시어 저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주십니까!”²⁴⁾ 秋胡의 생사마저 모른 채 改嫁를 권유하는 것은 참으로 개방적이거나 혹은 秋胡妻의 의중을 떠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결연하게 改嫁를 거부하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종신토록 어머니와 살겠다는 표현은 효도의 덕목을 중히 여기는 사회환경과 작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대는 변화하고 습속은 바뀌었지만 기존의 봉건적 질서와 윤리를 중시 여기는 기성세대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秋胡는 귀국하기로 한 3년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9년 만에 귀국하는 길에 뿔나무 숲에서 아리따운 처자에게 눈이 팔려 6-1), 6-2)와 같은 獻詩와 유혹을 던지며 노골적인 희롱을 건넨다. “한 마리 말에 두 개의 안장을 엮는 법이 없고, 한 마리 소가 어찌 두 대의 수레를 끌겠습니까? 집안이 빈한하면 차라리 굶어서 죽을지언정 내 어찌 황금을 가지고 놀기를 중시하겠습니까? …… 설사 황금이 하늘 가운데까지 쌓이고 각종 비단이 산더미처럼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연모하는 심정으로 청빈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²⁵⁾ 秋胡妻의 이와 같은 남편에 대한 단호한 충절과 일인지하에 유혹을 거절하는 지순한 마음은 개방을 특성으로 하는 당대사회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秋胡妻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도 없이 가부장적인 권위사회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모한 것은 역시 唐代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신하는 작자의 과잉된 의욕의 결과일 것이다.

넷째, 기존의 기록들과 달리 〈秋胡變文〉에서 秋胡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바른 선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秋胡의 집요하고 은근한 추파에 대해 그녀는 조금의

24) 같은 책 233쪽. “新婦父母正配，本擬恭懇阿婆；婆兒遊學不來，新婦只合盡形供養，何爲重嫁之事，令新婦前割於心?”

25) 같은 책 234쪽. “一馬不被兩鞍，單牛豈有雙車並駕！家中貧薄，寧可守節而死，豈樂黃金爲重！……縱使黃金積到天半，亂彩須似丘山，新婦寧有戀心，可以守貧取死!”

주저함이 없이 단호히 거절한다. “秋胡는 이 말을 듣자 얼굴에 부끄러움이 일어 수레를 타고 즉시 길을 떠나버렸다. 몇 걸음을 걷고서는 마음속으로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내 일찍이 정부, 열녀에 대해 들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야 직접 목격하였다. 뉘 덕의 부녀자인지 감히 사서에 올려 만대에 그 이름을 전할 만 하다.」”²⁶⁾ 뽕나무들에서 낫선 여인에게 건넨 추파와 회롱은 윤리도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秋胡妻의 단호한 거절에 놀란 秋胡가 수치심에 그 자리를 당장 떠나면서 너무 미안한 나머지 오히려 그 이름을 “사서에 전하여 길이 전할 만 하다”라고 감탄을 하는 내용은 唐代에 추가된 독창적인 표현이다. 秋胡의 파오는 한 눈에 제 처를 식별하지 못한 점이지만 개방의 풍조가 만연하고 남녀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된 唐代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표현이다.

7. 結語

이상으로 秋胡戲妻 고사의 유래와 각 작품 간의 뚜렷한 상이점과 특성, 그리고 주요 연변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秋胡戲妻 고사 중의 중요 인물은 당연히 秋胡와 秋胡妻이기 때문에 각 작품마다 두 사람의 역할이 고사의 발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작품에서는 秋胡가 고사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과 역할을 담당하지만, 또 다른 작품 중에서는 秋胡妻의 역할과 영향이 고사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한 작품들의 분석을 토대로 각 작품이 보이고 있는 특성과 차이 및 각 작품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漢代는 유학을 통치의 근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의 학술과 사상이 사회적인 기풍을 이루고 주류사회의 통치이념이 되었다.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계층을 초월하는 공감과 소통의 톨 모델의 역할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劉向의 《節義傳》은 부녀자의 덕행을 통해 황제의 인척과 측근,

26) 같은 책 234쪽. “其秋胡聞說此語，面帶羞容，乘車便過。行至數步，心裏(中)歎言：「我聞貞夫烈婦，自古至今耳聞，今時目前交見。誰家婦堪上史記，萬代傳名。」”

그리고 일반 백성을 교화시키고 勸諫하기 위한 의도에서 저작되었다. 「魯秋潔婦」 고사를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秋胡妻는 漢代 사회가 필요로 하는 忠孝와 節義를 대표하는 현모양처이며, 秋胡는 불효 불충과 호색한의 상징이다. 劉向은 이 양자를 선과 악의 세력으로 대비시키며 악의 세력을 개과천선의 길로 권간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 고사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魯秋潔婦」 중의 중심인물은 당연히 秋胡妻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秋胡의 역할도 재조명해야 한다. 秋胡가 뽕을 따던 여인에게 건넨 회롱을 불온하게 여기고, 단죄하는 것은 순수한 인간의 욕망을 모두 죄악시하는 것과 같다. 秋胡는 採桑女가 유혹을 거절했을 때 바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秋胡妻는 남편의 불의한 생각 때문에 강으로 달려가 투신하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묘사는 작자 劉向이 秋胡妻의 지나친 완고함의 일면을 강조하고, 뒤늦게 반성하는 秋胡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의도된 결과일 것이다.

둘째, 傅玄의 《秋胡行》 중에는 秋胡妻의 지조를 더 높이 평가하고, 秋胡에 대해서는 《節義傳》에 비해 더욱 타락한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秋胡妻의 독수공방하는 모습을 더욱 예절하게 묘사한 반면 秋胡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사랑의 배신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는 秋胡가 자기 부인을 마주치자 “마치 끊은 물속에서 손을 피하듯이 조심”하며 수치스러워 전전공공하는 묘사를 통하여 秋胡의 자성하는 모습을 부각하였다. 또한 秋胡가 출가하고 귀가하는 원인과 아내 회롱 행위에 대한 해명을 통해 秋胡의 파오를 경감시켜 그에게 고착된 부정적인 모습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西京雜記》는 앞의 기록에 비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부부의 입장과 관점에서 평등하게 서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닌 부부간의 상호과실과 상호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秋胡가 아내를 마주치자 “부끄러워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갔다”라고 하는 더욱 발전된 묘사를 통해 秋胡의 대범한 선비 상을 돋보이게 하였다. 이것은 아마 투철한 야인 기질의 소유자인 작자 葛洪이 秋胡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불효와 불충 같은 이미지를 불식하려

고 의도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南北朝 시기 많은 문인들은 과거 封建禮敎의 굴레를 탈피하고 애정을 애정으로 보려는 풍조와 관점에 치중하여 부녀자의 충절을 노래하였다. 顏延之의 〈秋胡詩〉는 바로 封建禮敎를 거부하는 南朝시기의 낭만적인 사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 詩는 秋胡戲妻 고사를 소재로 하였지만 풍부한 낭만적인 애정의식을 토대로 고사의 본질을 완전히 개조하여 최초로 탄생한 장편 秋胡 서사시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애정의 색채가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지만 특히 秋胡의 秋胡妻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연민의 애정표현이 더욱 농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고와 비유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시의 풍격을 우아하게 격상시켰고, 審美에 탁월한 문인의 文才가 〈秋胡詩〉를 絶唱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秋胡妻의 죽음이 節義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偕老하겠다는 애정의 약속을 배신한 데서 연유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顏延之의 秋胡 부부에 대한 불변의 애정관이 서사시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어 〈秋胡詩〉의 진한 애정의 여운이 독자의 심금을 울리게 하고 있다.

넷째, 唐代의 〈敦煌變文〉에 이르러 秋胡戲妻 고사는 내용과 주제, 그리고 사상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한다.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전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전 기록들에서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들이 첨가되어 고사의 생동감과 참신성을 크게 고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求學과 출사에 대한 의지, 母子別, 新婚別, 入山遇僊, 求官仕魏, 秋胡妻의 孝誠, 改嫁의 권유, 귀국탄원, 등은 〈秋胡變文〉만의 독창적인 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작품은 이전의 기록들과 달리 秋胡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秋胡妻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보수적인 여인상의 성격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작품의 전면에 흐르는 주요 기조는 忠孝와 求學이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었으며, 애정적인 색채는 이전에 비해 중요하게 묘사되지 않고 있다.

唐代사회는 문인이든 무인이든 출사하여 공명을 이루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부녀자들은 독수공방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편적인 미덕으로 간주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敦煌變文〉 중의 秋胡 부부의 운명은 당시 보편적인 시대배경

의 투영이며, 秋胡妻는 당시 독수공방하는 怨婦의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唐代사회는 개방문화를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의 풍습 또한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의 이혼과 改嫁, 남 여 간의 私通이 비교적 자유롭던 시기였다. 시어머니가 秋胡妻에게 改嫁를 권유하는 것도 이런 변화된 시대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개방풍조로 인해 정질관념이 퇴조했지만 이것이 모든 부녀자가 封建禮敎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秋胡變文〉 중의 8-3)의 표현처럼 머느리가 아들 秋胡를 반가워하지 않자 “혹 이웃에 연인이 생긴 것 아닌가”하고 의심을 한다. 이것은 바로 唐代 기층 여성들이 封建禮敎의 속박에 얽매어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낮고, 그들의 운명은 남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秋胡妻는 자신이 당한 일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과오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음을 “하나는 집에 불효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에 불충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바로 이 내용은 禮敎를 중시 여겨야만 하는 唐代의 일반 여성들이 결혼 후에 겪는 고통스러운 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秋胡變文〉의 작자는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秋胡戲妻 고사를 재조명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그는 忠孝의 덕목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秋胡에게는 出仕하여 忠孝를 이루는 중심인물의 성격을 부여하였고, 秋胡妻에게는 이런 남편을 묵묵히 순종하는 현모양처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參考文獻〉

- 張湧泉, 黃征 校註 《敦煌變文校註》, 中華書局, 1997.
 潘重規 《敦煌變文集新書》上下, 中國文化大學中文研究所, 1983.
 楊家駱 主編 《敦煌變文》上下, 世界書局, 1980.
 葛洪 《西京雜記》《文淵閣四庫全書》 서울대학교.
 貴州人民出版社 《西京雜記全譯》 捲六, 貴州人民出版社, 1993.
 葛洪, 《西京雜記》 捲六, 中華書局, 1985.
 임동석 역주 《서경잡기》 동서문화사, 2009.
 張濤 《列女傳譯註》 山東大學出版社, 1990.
 임동석, 역주 《열녀전》 동서문화사.

- 徐陵 編 《玉臺新咏》上 華夏出版社, 1998.
- 권혁석 역 《옥대신영》 서릉편, 소명출판, 2006.
- 陳宏天 主編 《昭明文選》第三冊, 吉林文史出版社, 1994.
- 김영문 외 5인 《文選譯注》 소명출판, 2011.
- 曹础基 主編 《中國古代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2.
- 中華書局 《古小說叢刊》 中華書局, 1979.
- 曹础基 主編 《中國古代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2.
- 肖明明, 趙義山 〈論秋胡戲妻故事中秋胡形象的演變〉, 樂山師範學院學報 第25卷, 第1期, 2010.
- 羅國連 〈論秋胡戲妻故事中的秋胡形象〉以列女傳至秋胡戲妻爲範圍 東吳中文線上學術論文第14期, 2011.
- 李恩英 〈秋胡故事的流變〉 尋根, 2005-1期.
- 김영숙 〈元雜劇 〈秋胡戲妻〉를 통해 본 여성의 주체성〉 중국어문학지 제28집, 2008.

〈中文提要〉

秋胡戲妻的故事, 從漢代開始很廣泛流傳, 最早見《列女傳·節義傳》中, 在該故事演變過程中很多學者把研究的方向集中到了秋胡妻的角色, 而對秋胡的形象則很少關注。秋胡戲妻故事在不同的時期演變反映了文人的不同心態。在漢代是以儒家的忠孝觀念爲觀點, 強烈批評不孝不忠的秋胡, 而很表揚秋胡妻的信義。魏晉時期的文人爲了宣揚禮教, 更重視秋胡妻的節義行爲, 也強調秋胡并非全無廉耻的人。到了南朝時期, 顏延之〈秋胡詩〉從根本上改造了秋胡戲妻故事, 拋棄了封建禮教的教義, 符合了當時人們的浪漫思想。顏延之將歌頌忠貞不渝的愛情作爲〈秋胡詩〉的核心思想。在唐代秋胡戲妻故事有了進一步的發展, 雖然〈秋胡變文〉前後均有殘缺, 但故事主要框架不變, 全文的寫法改爲以秋胡爲中心人物, 只是更爲完整, 增加了很多細節的描寫。〈秋胡變文〉具有鮮明的唐代生活色彩, 秋胡的主動求仕行爲也是唐朝提倡科舉的側面反映。由於唐代開放的風氣, 變文里對秋胡

負妻的行爲存有寬容之心, 他的錯誤僅在不認識妻子。而秋胡妻的形象也比漢魏南北朝有了明顯的差距, 她對秋胡不滿但對婆婆孝順, 很突出的個性側重於孝順良妻的婦德觀。

关键词: 秋胡戲妻 忠孝 節義 愛情 忠義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